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순차매개효과[†]

이 슬 기

삼성 SDS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에게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주된 기제로 정서조절곤란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며 각 증상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선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이 공격성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특히 조절을 어려워하는 수치심과 분노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참가자는 여자대학생 273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해 경계선 성격특성, 수치심 경향성, 특성분노,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경계선 성격특성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특성분노가 완전매개하였다. 예상과 달리,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여러 경로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경계선 성격특성, 수치심 경향성, 특성분노, 공격성, 여성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혜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서, 대인관계, 자아상의 불안정성이 만연하고 충동성이 두드러져 개인에게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사회, 직업 등 주요 영역에서 기능 손상을 야기할 때 진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오래전부터 성격장애는 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극단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Widiger & Trull, 2007). 한편, 장애 수준에 달하지는 않더라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많이 보이는 비임상군 역시 경계선 성격장애와 유사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ull, 1995). 그리고 성격장애 수준으로 발현되기 전 성격적 경향성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장애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적인 개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홍상환, 김영환, 1998; Trull, 1995).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의 주요한 적응 문제로 우려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높은 공격성이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환자의 73%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이들에게서 흔히 관찰된다(Newhill, Eack, & Mulvey, 2009). 심각도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정다연, 임종민, 곽호완, 장문선, 이종환, 2019; Raine, 1993).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의 공격성은 동반자나 지인을 향한 신체적 폭행, 재산 파괴, 심한 경우 살인 등의 범죄로도 이어지기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Sansone & Sansone, 2012). 또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Werner & Crick, 1999).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은 거절에 유독 민감하고, 대인관계 역기능 경험 시 자해나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타인에 대한 높은 공격성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당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증상이다(Brodsky, Groves, Oquendo, Mann, & Stanley, 2006; Staebler, Helbing, Rosenbach, & Renneberg, 2011).

한편, 공격성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우선 그 형태에 따라 신체적인 힘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삼는 신체적 공격성,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거나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집단에서 배제시키는 등 대인관계 측면을 이용하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에게서는 두 가지 형태의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Newhill et al., 2009; Ostrov & Houston, 2008). 또한 공격성은 그 기능에 따라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하는 주도적(proactive) 공격성과 위협을 지각하였을 때 불쾌한 정서경험과 동반하여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적(reactive) 공격성으로도 구분된다(Dodge & Coie, 1987).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충동성이 높으며, 위협을 과민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바, 전형적으로 반응적 공격성과 관련이 깊다(Mancke, Herpertz, & Bertsch, 2015).

경계선 성격특성의 공격성 증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선 그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격성을 비롯하여 경계선 성격

장애의 여러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제로 정서조절곤란이 제안되어 왔다(Linehan, 1993; Glenn & Klonsky,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채 불쾌한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할 때, 이러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전환시키고자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Scott, Stepp, & Pilkonis, 2014). 한편, 정서조절곤란이란 개인이 어떠한 정서를 적절한 수준으로 경험하거나 표현하지 못하여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일컫으며(Gross, 1998), 정서의 유형, 강도, 지속기간, 빈도, 정서에 대한 인식, 정서 조절의 목적, 정서조절방략 등이 포함되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다(Gross & Jazaieri, 2014). 정서와 관련한 문제가 각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Carpenter & Trull, 2013; Gross & Jazaieri, 2014). 관련하여 Rizvi와 Fitzpatrick(2021)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정서를 두드러지게 경험하는지에 따라 자살 및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치료효과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달랐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워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의 정서조절곤란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이들이 모든 정서를 같은 정도로 조절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먼저,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비성격장애 환자에 비해 수치심반응 경향

이 두드러졌고, 쉽게 기저선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Gratz, Rosenthal, Tull, Lejuez, & Gunderson, 2010). 또한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e.g., 거절, 유기, 배반 등)을 경험하였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고, 수치심 정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기분장애 환자와 구분되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특징이었다(Mneimne, Fleeson, Arnold, & Furr, 2018). 환자 집단 뿐 아니라, 최근 타인에게 공격행동을 행한 적 있는 비임상군 초기 성인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장면에서 거절을 지각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성향을 많이 보일수록 다른 부정정서보다 분노와 수치심 정서로 반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그중 분노 정서가 이후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Scott et al., 2017). 이를 종합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이 다른 부정정서보다도 수치심과 분노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을 지각 및 경험하였을 때 그러하였는데, 이는 타인의 거절에 민감한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맥락과도 일치한다(Herr, Keenan-Miller, Rosenthal, & Feldblum, 2013; Stepp, Smith, Morse, Hallquist, & Pilkonis, 2012). 따라서 경계선 성격특성의 공격성에 기여하는 정서조절곤란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데 있어 다른 부정정서보다도 수치심과 분노 정서에서의 조절곤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성격적 경향성을 가리켜 특성분노라 일컬으며, 이는 특별한 유발자극 없이도 분노를 쉽게 느끼는 경향성인 분노 기질, 그리고 비난을 비롯한 특정 자극을 마주하였을 때 나

타나는 분노 반응, 두 하위요인으로 나뉜다(Spielberger, 1988).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에게선 특성분노 및 두 하위 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Lubke, Ouwens, de Moor, Trull, & Boomsma, 2015). 대다수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부적절한 분노 증상을 경험하고, 10년이 지나도 절반에 달하는 환자들이 여전히 분노 증상을 호소할 정도로 쉽게 관해되지 않으며(Zanarini et al., 2007),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다른 환자집단에 비해 분노를 자주 경험할 뿐 아니라 유독 고통스럽게 느낀다(Kockler, Santangelo, Limberger, Bohus, & Ebner-Priemer, 2020).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공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공격성은 위협적이고 좌절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적 공격성인데, 이는 사람들이 흔히 분노를 경험하는 맥락과도 일치한다(Berkowitz, 1993; Blair, 2012). 그리고 특성 분노가 경계선 성격특성과 연인 관계에서의 공격성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던 연구 결과는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경계선 성격특성의 공격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Armenti & Babcock, 2021).

한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좌절되거나 비난하여 마땅한 일에 분노를 느낄 뿐 아니라, 불쾌하고 혐오적인 경험 전반에 의해서도 분노를 경험한다(Berkowitz, 1990). 이를 고려하면, 부정정서에 대한 반응성이 과도하고 쉽게 기저선으로 회복하지 못해 불쾌한 정서 상태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다른 부정정서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로도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Linehan, 1993). 경계선 성격장애와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과 특성 분노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던 선행연구 결과는 이와 맥을 같이 한다(Mancke, Herpertz, Kleindienst, & Bertsch, 2017). 그러나 전술하였듯, 정서조절곤란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기에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이 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독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가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이란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나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서를 의미하며(Lewis, 2000), 수치심을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하는 성격적 특징을 가리켜 수치심 경향성이라 한다(Lewis, 1971).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다른 기분장애, 사회불안장애 환자 집단에 비해 수치심 경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Mneimne et al., 2018; Rüschi et al., 2007). 또한 수치심은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할 위험에 처해있음을 경고하는 기능을 하며(Gilbert, 2007),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강하기에 수치심을 유독 혐오적인 것으로 경험하곤 한다(Schoenleber & Berenbaum, 2012).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을 경험하는 개인은 고통스러운 정서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주의를 타인에게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여 분노, 공격성을 비롯한 변인과 수치심 간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우선, 분노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분노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ejdenberg & Andrews, 2011;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경계선 성격특성과 관련해서도 수치심과 분노 간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Scheel 등(2013)의 연구에서 수치심을 유도하였을 때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이나 정상군에 비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에서 수치심에 대한 반응으로 유독 오래 분노를 경험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특성을 많이 보일수록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며, 이것이 높은 수준의 분노로 이어짐을 검증한 연구가 존재한다(Peters & Geiger,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수치심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양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공격성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유의하지 않거나 혹은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등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편이다(Stuewig, Tangney, Heigel, Harty, & McCloskey, 2010; Tangney et al., 1992; Velotti, Garofalo, Bottazzi, & Caretti, 2017). 경계선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 역시 그러하다. 우선 Peters와 Geiger(2016)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과 언어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경계선 성격특성과 신체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가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Scott 등(2017)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많이 보일수록 일상에서 거절을 지각하였을 때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다른 부정정서 이상으로 수치심이 이후의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수치심 경향성과 공격성 간 관계에 대

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수치심과 공격성 간의 개념적인 모순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며, 타인으로부터 위축되게 만드는 정서로 제안되어 왔으므로(Lewis, 1971), 타인에게 접근하여 해를 가하는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Stuewig et al., 2010). 반면, 분노나 비난의 외부화와 같은 개인 내적 과정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수치심 경향성과 비교적 일관된 정적 관계를 보여왔다. 관련하여 다수의 표본(대학생, 수감자, 일반 및 위기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치심 경향성과 공격성 간 관계를 탐색하였을 때, 수치심 경향성과 공격성 간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난의 외부화를 거친 간접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Stuewig et al., 2010). 이는 수치심 경향성과 공격성 간 직접적인 경로만을 설정하는 것은 두 변인 간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에 분노나 비난의 외부화와 같이 자신을 향한 주의를 외부로 돌리는 내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심 경향성과 공격성 간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자신을 향한 주의를 외부로 돌리는 내적 과정에 대한 변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수치심 경향성은 개인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회피 동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경우, 주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회피 전략을 사용해 정서를 조절하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오랫동안

안 불쾌한 정서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이를 고려하면, 수치심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회피 동기가 두드러질수록 더욱 고통스럽게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높아지면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주의를 외부로 돌리고자 동기화될 수 있다. 관련하여 Cohen, Wolf, Panter와 Insko(2011)의 연구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은 분노 및 공격성 변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위축 행동 요인은 이들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수치심 경향성의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다른 변인과의 관계 양상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수치심 경향성과 관련이 되는 특성분노의 유형이 구분됨을 제안한 선행연구 역시 존재한다(Heijenberg & Andrews, 2010). 구체적으로, 특성분노의 두 하위요인 중 특별한 자극 없이도 분노를 느끼는 ‘분노 기질’보다는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써 경험하는 ‘분노 반응’이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 간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수치심 경향성과 함께 특성분노 역시 하위요인 수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수치심 경향성이 높고, 수치심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이 공격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 두드러지는 정서조절곤란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기제에 대해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세분화하지 못한 채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인 정서조절곤란 변인만을 설정

하거나(Mancke et al., 2017), 수치심과 분노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에만 주목해왔다(Scott et al., 2017). 또한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다른 변인과의 관계 양상이 상이할 가능성이 제안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의 관계를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 변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으로 시사되는 정서조절곤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 각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변인 간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기제에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성별-특정적인(gender-specific) 접근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이 있었다(González, Igoumenou, Kallis, & Coid, 2016; Mancke, Bertsch, & Herpertz, 2015).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경우, 남성 못지않게 여성 역시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cke et al., 2015). 그러나 남성 공격성의 기제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여성 공격성의 기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된 실정이다(Denson, O’Dean, Blake, & Beames,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집단에 주목하고자 하며, 더불어 성격장애 유병률이 성인기 초기에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Stone, 1990), 여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아래 연구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경계선 성격특성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특성분노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1.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 각각의 하위요인 별로 순차매개 경로의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여자 학부생 29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한 참가자 9명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참가자 12명을 제외한 273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경계선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ey(1991)가 개발하고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번안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PAI-BOR)를 사용하였다. 국내 번안 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3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을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총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0이었다.

자의식적 정서 척도 (Test of Self-Conscious Affect-3: TOSCA-3).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Dearing, Wagner와 Gramzow(2000)가 개발하고, 송수민(2007)이 번안한 TOSCA-3을 사용하였다. TOSCA-3은 수치심, 죄책감, 비난의 외부화, 분리/무관심, 자부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11개의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5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마다 각 반응에 5점 리커트 척도(1점: 그럴 것 같지 않다 ~ 5점: 매우 그럴 것 같다)에 따라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시나리오 11개에서의 수치심 응답을 합산하여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였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한편, TOSCA로 측정하는 수치심 경향성은 수치심 경험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요소들을 포함하며, 크게 '부정적 자기평가'와 '행동적 회피'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TOSCA는 일반 성인, 청소년, 범죄자 등 대상에 따라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데, 범죄자 집단의 경우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의 유의하지 않고 하위요인별로 다른 변인과의 관계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사용되어 온 바 있다(Tangney, Stuewig, & Martinez, 2014; Tangney, Stuewig, Mashek, & Hastings, 2011).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TOSCA 버전에서는 대체로 두 하위요인 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로 두 하위요인을 합쳐서 수치심 경향성이 측정되어왔는데(Tangney et al., 2011),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할 때에도 두 요인을 구분해서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Cohen et al., 2011). 이에 수치심 경향성의 영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부정적 자기평가 7문항과 행동적 회피 4문항 각각의 합산 점수 역시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자기평가가 .71, 행동적 회피가 .57이었다.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 척도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특성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8)가 개발하고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8)에 의해 한국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타당화된 한국판 상태-특성분노 표현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STAXI-K는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을 측정하는 척도로, 분노 경험은 상태/특성분노로 구성되고, 분노 표현은 분노-억제/표출/통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차원에서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특성분노 10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성분노는 분노 반응과 분노 기질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분노 기질 5문항과 분노 반응 5문항 각각 합산한 점수 역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에 의해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

성분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며, 그 중 분노 반응은 .66, 분노 기질은 .75였다.

자기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 질문지 (Self-Report of Aggression and Behavior Measure: SRASBM).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과 Crick(1998)이 개발하고 김현아(2015)에 의해 국내에서 변안된 SRASBM을 사용하였다. SRASBM은 관계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피해, 신체적 피해, 배타성, 친사회적 행동 6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반응적, 주도적, 애정관계에서의 공격성으로도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6문항과 반응적 신체적 공격성 3문항의 총점을 사용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였다.

자료분석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해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이 준거변인인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추후 분석에서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해 경계선 성격특성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표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3-1	3-2	4	4-1	4-2	5
1.연령									
2.경계선 성격특성	-.03								
3.수치심 경향성	-.08	.42**							
3-1.부정적 자기평가	-.06	.38**	.94**						
3-2.행동적 회피	-.08	.35**	.76**	.49**					
4.특성분노	.05	.57**	.27**	.22**	.27**				
4-1.분노 반응	.11	.45**	.28**	.23**	.28**	.80**			
4-2.분노 기질	-.02	.50**	.18**	.14*	.18**	.87**	.39**		
5.타인에 대한 공격성	.13*	.35**	.16**	.09	.23**	.50**	.45**	.39**	
평균	19.05	28.03	32.27	22.77	9.50	21.95	12.05	9.89	17.89
표준편차	1.42	7.73	7.17	5.33	2.87	4.61	2.50	3.01	6.57

* $p < .05$, ** $p < .01$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 특성분노 및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model 6을 사용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 및 이들의 하위변인들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과 준거변인인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던 바, 추후 분석에서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타 연구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다만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자기평가 간 상관관

계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09$, ns .

경계선 성격특성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 연령 변인을 넣어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경계선 성격특성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30$, $p < .001$, 타인에 대한 공격성 총 변량의 13%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F(2, 270)=23.11$, $p < .001$.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특성분노가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경계선 성격특성이 특성분노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34, p<.001$. 다음으로 연령과 경계선 성격특성, 특성분노가 동시 투입되었을 때, 특성분노가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b=.61, p<.001$, 경계선 성격특성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10, ns$. 해당 모형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 총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F(3, 269)=32.83, p<.001$. Bootstrapping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이 특성분노를 거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2096, 95\% CI [.1372, .2957]$. 특성분노의 하위요인 서로 간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분노 기질, $b=.0736, 95\% CI [.0264, .1410]$ 과 분노 반응, $b=.0898, 95\% CI [.0506, .1465]$ 각각의 완전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순차매개효과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서 경계선 성격특성이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를 거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경계선 성격특성은 수치심 경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39, p<.001$. 다음으로 연령, 경계선 성격특성, 수치심 경향성을 동시 투입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특성분노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33, p<.001$, 수치심 경향성은 특성분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b=.03, ns$. 마지막으로 연령, 경계선 성격특성, 수치심 경향

성, 특성분노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특성분노, $b=.61, p<.001$ 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경계선 성격특성, $b=.09, ns$ 과 수치심 경향성, $b=.00, ns$ 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모형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 변량의 2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4, 268)=24.53, p<.001$.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이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066, 95\% CI [-.0111, .0267]$.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하위요인별 분석

1) 수치심 경향성의 행동적 회피 하위요인과 특성분노의 분노 반응 하위요인의 순차매개효과

먼저, 연령,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 기질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행동적 회피와 분노 반응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분석하였고, 그림 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은 통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행동적 회피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06, p<.05$. 다음으로 통제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행동적 회피를 동시 투입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 $b=.09, p<.001$ 과 행동적 회피, $b=.12, p<.05$ 는 분노 반응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과 경계선 성격특성, 행동적 회피, 분노 반응을 동시 투입하였을 때, 행동적 회피, $b=.31, p<.05$ 와 분노 반응, $b=.77, p<.001$ 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경계선 성격특성, $b=.10, ns$ 의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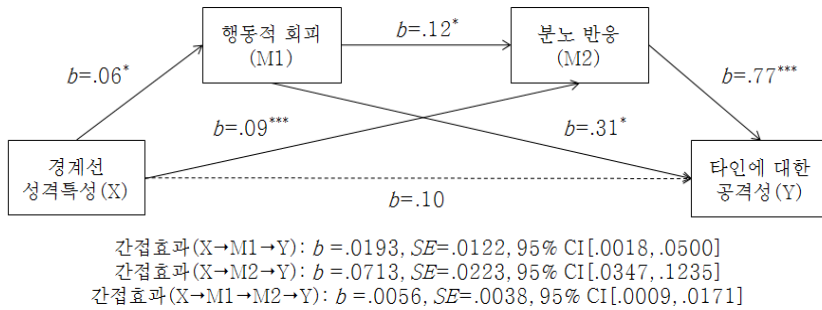


그림 1.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행동적 회피와 분노 반응의 순차매개효과

주. * $p < .05$, *** $p < .001$.

모형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 총 변량의 29%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6, 266) = 18.13, p < .001$. 경계선 성격특성이 행동적 회피와 분노 반응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b = .0056, 95\% CI [.0009, .0171]$. 한편,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행동적 회피가 단독 매개하는 경로, $b = .0193, 95\% CI [.0018, .0500]$ 와 분노 반응이 단독 매개하는 경로, $b = .0713, 95\% CI [.0347, .1235]$ 역시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2) 수치심 경향성의 행동적 회피 하위요인과 특성분노의 분노 기질 하위요인의 순차매개효과

연령,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 반응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행동적 회피와 분노 기질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은 통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행동적 회피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05, p < .05$. 다음으로 통제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행동적 회피를 동시 투입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이 분노 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 = .17, p < .001$, 행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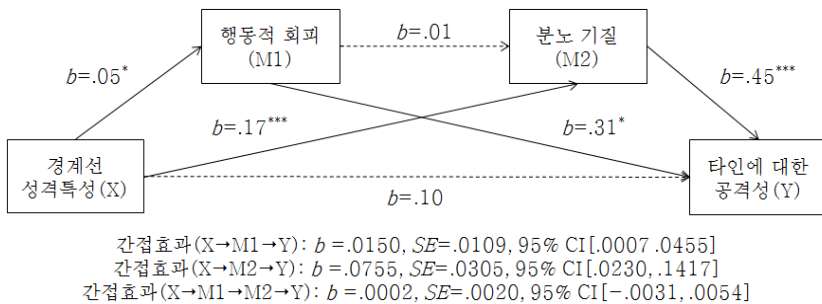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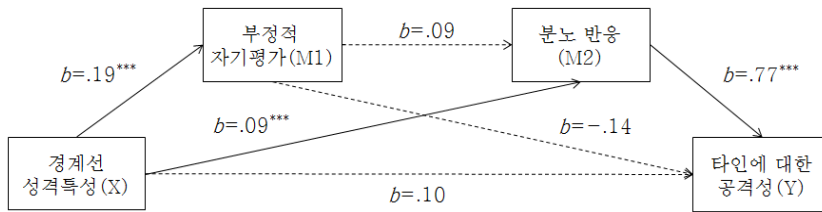


그림 2.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행동적 회피와 분노 기질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 $p < .05$, *** $p < .001$.



간접효과(X→M1→Y): $b = -.0266, SE = .0143, 95\% CI [-.0599, -.0034]$
 간접효과(X→M2→Y): $b = .0713, SE = .0223, 95\% CI [.0335, .1236]$
 간접효과(X→M1→M2→Y): $b = .0025, SE = .0048, 95\% CI [-.0055, .0141]$

그림 3.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 반응의 순차매개효과

주. $***p < .001$.

회피가 분노 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 = .01, ns$. 이후 통제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행동적 회피, 분노 기질을 동시 투입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10, ns$. 행동적 회피, $b = .31, p < .05$ 와 분노 기질, $b = .45, p < .001$ 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사이에서 행동적 회피와 분노 기질의 순차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02, 95\% CI [-.0031, .0054]$. 한편, 행동적 회피, $b = .0150, 95\% CI [.0007, .0455]$ 와 분노 기질, $b = .0755, 95\% CI [.0230, .1417]$ 각각의 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3) 수치심 경향성의 부정적 자기평가 하위요인과 특성분노의 분노 반응 하위요인의 순차매개효과

연령, 행동적 회피, 분노 기질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 반응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은 통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부정적 자기평가를 정적으로 유

의하게 예측하였다, $b = .19, p < .001$. 다음으로 통제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부정적 자기평가가 동시 투입되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분노 반응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 = .09, p < .001$, 부정적 자기평가는 분노 반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 = .09, ns$. 마지막으로 통제변인과 경계선 성격특성,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 반응을 동시 투입하였을 때, 분노 반응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 = .77, p < .001$, 경계선 성격특성, $b = .10, ns$ 과 부정적 자기평가, $b = -.14, ns$ 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 반응을 순차적으로 거쳐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0025, 95\% CI [-.0055, .0141]$. 그러나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의 매개효과는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였고, $b = -.0266, 95\% CI [-.0599, -.0034]$, 분노 반응의 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b = .0713, 95\% CI [.0335, .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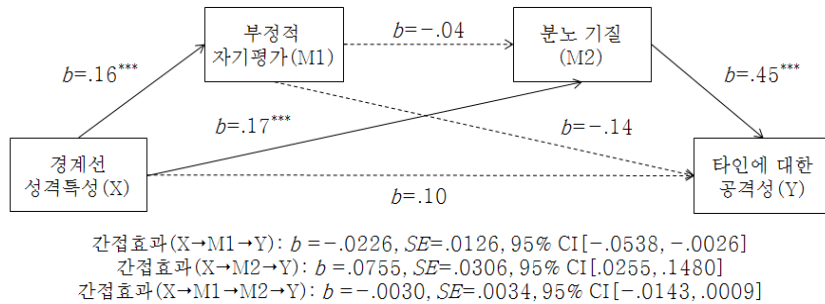


그림 4.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 기질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 $p < .001$.

4) 수치심 경향성의 부정적 자기평가 하위요인과 특성분노의 분노 기질 하위요인의 순차매개효과

연령, 행동적 회피, 분노 반응을 통제하였을 때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 기질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은 통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부정적 자기평가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b = .16, p < .001$. 다음으로 통제변인과 경계선 성격특성, 부정적 자기 평가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이 분노 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 = .17, p < .001$, 부정적 자기평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4, ns$.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경계선 성격특성, 부정적 자기평가, 분노 기질을 동시 투입하였을 때, 분노 기질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 = .45, p < .001$, 경계선 성격특성, $b = .10, ns$ 과 부정적 자기평가, $b = -.14, ns$ 가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평가와 분노 기질의 순차적 매개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030, 95\% CI [-.0143, .0009]$. 한편, 부정적 자기평가는 부적 방향으로, $b = -.0226, 95\% CI [-.0538, -.0026]$, 분노 기질은 정적 방향으로, $b = .0755, 95\% CI [.0255, .1480]$ 각각의 매개경로가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였으며, 순차매개 양상이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하위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을 많이 보일수록 타인에게 더욱 공격적이며,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정다연 외, 2019; Ostrov & Houston, 2008; Raine 1993).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다양한 기능과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두드러지는 공격성의 특징을 민감하게 포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특성분노가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높은 분노를 경험한다는 점과(Kockler et al., 2020; Zanarini et al., 2007), 분노를 적절히 조절 못하는 이들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이론적 제안(Berkowitz, 1993; Blair, 2012)을 근거로 검증한 것이다.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써 나타나 분노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반응적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에게서 두드러진다는 연구는 여럿 존재해왔다(박성원 외, 2017; Kogan-Goloborodko, Brüggmann, Repple, Habel, & Clemens, 2016). 그러나 경계선 성격특성과 연인 관계에서의 공격성 사이를 특성분노가 매개하였던 연구(Armenti & Babcock, 2021)를 제외하고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고유한 기제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연인과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 전반에 대한 공격성으로 확장시켜 특성분노의 기제를 검증한 것이다.

셋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하위요인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각 하위요인별로 다른 변인과의 관계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치심 경향성 중 행동적

회피 하위요인과 특성분노 중 분노 반응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행동적 회피는 분노 반응을 거치지 않고서도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회피 전략을 사용해 정서조절을 할 경우 역설적으로 더욱 오래 고통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 그리고 수치심을 느낀 개인은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를 향한 부정적인 주의를 타인에게로 돌리면서 분노 및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검증한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Aldao et al., 2010; Lewis, 1971).

반면, 수치심 경향성 중 부정적 자기평가의 경우, 분노 반응을 거친 순차매개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경계선 성격특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관계에서는 매개효과가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수치심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기평가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정서인 분노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타인에게 접근해 직접 해를 가하는 행동인 공격성과는 부적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을 나눠서 살펴보았을 때 부정적 자기평가 요인은 분노 및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위축 행동 경향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Cohen et al., 2011).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별로 상반된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 간 혼재된 관계양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며, 수치심 경향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자기평가 요인과

회피동기 요인을 구분해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준다.

한편, 특성분노의 하위요인에 따라 수치심 경향성과의 관계 양상에 차이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분노 반응은 분노 기질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수치심 경향성의 행동적 회피 하위요인과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분노 기질은 분노 반응의 영향을 통제하자 수치심 경향성의 어떠한 하위요인과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수치심과 관련되는 분노는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나타나므로(Lewis, 1971), 유발자극과 관계없이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분노 기질보다는, 비난과 같은 유발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분노 반응이 수치심 경향성과 관련되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 또한 특성분노의 두 하위요인이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분노 반응만이 수치심 경향성과 관계가 유의하였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ejdenberg & Andrews, 2011). 본 연구는 여기서 나아가 수치심 경향성 중에서도 회피 동기 측면이 분노 반응에 기여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특성분노가 경계선 성격특성의 공격성과 관련이 깊지만,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회피의 영향을 받는 분노 경향성과 그렇지 않은 분노 경향성이 구분되고 각자 고유한 기제를 갖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수치심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경계선 성격특성이 특성분노 하위요인들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수치심을 회피행동을 통해 조절하고자 하는 것 외에도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의 분노 경험에 기여하는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이 특히 혐오적으로 경험하는 수치심 정서에 초점을 두었는데, 정서 경험뿐 아니라 인지적 처리과정(e.g. 적대적 사회적 단서에 대한 선택적 주의, 적대적 해석 경향성, 분노 반추 등) 역시 특성분노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안된 바 있다(Wilkowski & Robinson, 2010).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높은 특성분노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요인들 간 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임상군 표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애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개입의 표적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경우 각 변인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의 행동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도를 알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변인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행동 관찰을 비롯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치심 경향성의 행동적 회피 하위요인(Cronbach's $\alpha=.57$)과 특성분노의 분노 반응 하위요인(Cronbach's $\alpha=.66$)의 신뢰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우선, TOSCA처럼 시나리오에 기반한 측정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반응 경향성의 변량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상황 자체의 고유 변량도 포함하여 신뢰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Tangney, 1996). 더불어 Cronbach alpha 계수는 문항 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Cortina, 1993), 행동적 회피를 측정하는 문항이 4개밖에 되지 않았기에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분노 반응 문항 역시 5개로 적었으며, 그중에 이질적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여타 문항들은 ‘화가 난다’, ‘좌절감을 느낀다’ 등과 같이 내적 정서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반면, ‘나는 좌절감을 느끼면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문항은 이질적으로 행동 동기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양호한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 특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경향성, 공격성에만 초점을 두면서 이들 요인과 관련 있는 환경적 변인은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사건에 민감하며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공격성을 유발하곤 한다(Herr et al., 2013; Scott et al., 2017; Stepp et al., 2012).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의 내적 과정뿐만 아니라, 이에 선행하는 외적 사건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공격성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변인들은 모두 한 시점에 횡단적으로 측정되었기에, 인과관계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비록 본 연구모형은 선행 이론 및 경험연구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 실험 및 종단연구를 활용한다면 경계선 성격특성이 타

인에 대한 공격성을 예측하는 정서적 과정의 방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느린 정서 회복 역시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두드러지는 정서조절곤란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반응 경향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분노 정서가 기저선으로 회복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함께 측정함으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보이는 정서조절곤란의 주요 특징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여러 기제를 구체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의 핵심 기제로 정서조절곤란이 제안되어 왔으나(Glenn & Klonsky, 2009), 타인에 대한 공격성 증상이 나타나는 데 기여하는 정서조절곤란의 측면을 세분화해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공격성이 나타나는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수치심과 분노 정서에서의 조절곤란에 집중하였으며(Scott et al., 2017), 각 정서에서의 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간 관계를 잇는 여러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수치심 경향성과 특성분노의 하위요인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봄으로써 각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할 때 공격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이들이 분노를 자주 느끼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성을 나타냄을 검증함으로써 분노 정서에서의 조절곤란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들의 공격성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를 세분화함으로써 유발 자극(e.g., 수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유발자극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질적으로 분노를 경험하는 것 모두가 각각 고유한 기제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Kramer 등 (2016)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기술훈련을 진행하였을 때, 분노를 느껴 마땅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은 증진되었지만, 수치심이나 공포 등의 정서경험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는 분노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분노 문제에 개입 시, 혐오적인 경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는 분노와 그렇지 않은 분노를 구분해서 개별적인 치료효과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의 분노 문제를 제한적으로만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각 하위요인이 고유한 기제를 갖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러한 시사점과 맞아떨어진다.

비록 부정적 자기평가 경향성이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는 다른 변인들(e.g., 신경증적 성향, 낮은 자존감, 심리적 고통감)과는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Cohen et al., 2011). 이를 고려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보이는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부정적 자기평가 경향을 증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신 수치심을 경험할 때 이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분노 및 공격성과 정적으로 이어졌던 바, 행동적 회피 경향에 개입하는 것이 경계선 성격특성의 분노 반응 및 공격성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심을 표적으로 하

는 치료를 살펴보아도 수치심을 경험하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위축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반대로 행동하기’ 기술을 훈련 및 적용시키는 것이 이들의 수치심 문제에 개입하는 데 유용함을 검증한 예비연구가 있었다(Rizvi & Linehan, 2005). 비록 위 연구가 분노 및 공격성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지 검증한 것은 아니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위 치료를 활용함으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의 분노 및 공격성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수치심은 회피동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Lewis, 1971), 근래에는 수치심이 접근지향적인 동기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de Hooge, Breugelmans, Wagemans & Zeelenberg, 2018). 특히, 자신이 실패한 상황이나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된 상황을 얼마나 회복 가능하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수치심 정서가 친사회성, 자기계발과 같은 보다 건설적인 접근동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증한 메타연구가 존재한다(Leach & Cidam, 2015). 상기 연구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같이 기질적/만성적으로 수치심을 자주 느끼는 경우에는 상황의 회복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보아(Gausel & Leach, 2011), 기질적/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수치심 변인을 포함한 연구들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치심 경향성 변인 내에서도 회피적 동기 측면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요인이 구분될 수 있었

던 점을 고려하면, 기질적 차원의 수치심도 반드시 회피 지향적 동기와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기질적/만성적으로 수치심을 자주 경험하는 이들 역시 상황을 회복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기화될 수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도 구체적인 개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현아 (2015).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자녀 애착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원, 전선영, 박수현 (2017). 경계선 성격 성향과 부정 긴급성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1), 20-32.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다연, 임종민,곽호완, 장문선, 이종환 (2019). 사회적 배척 상황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공격성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647-667.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1998). 한국판 상태 - 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홍상황,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17-23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rmenti, N. A., & Babcock, J. C. (2021).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g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rejec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8*(5-6), NP3104-NP3129.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NY: McGraw-Hill Book Company.
- Blair, R. J. R. (2012). Considering anger from a cognitive neuroscience perspectiv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3*(1), 65-74.
- Brodsky, B. S., Groves, S. A., Oquendo, M. A., Mann, J. J., & Stanley, B. (2006). Interpersonal precipitants and suicide attempt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3), 313-322.
- Carpenter, R. W., & Trull, T. J. (2013). Components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Current Psychiatry Reports, 15*(1), 1-8.
- Cohen, T. R., Wolf, S. T., Panter, A. T., & Insko, C. A. (2011). Introducing the GASP scale: a new measure of guilt and shame pron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5), 947-966.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98-104.
- De Hooge, I. E., Breugelmans, S. M., Wagemans, F. M., & Zeelenberg, M. (2018). The social side of

- shame: Approach versus withdrawal. *Cognition and Emotion*, 32(8), 1671-1677.
- Denson, T. F., O'Dean, S. M., Blake, K. R., & Beames, J. R. (2018). Aggression in women: behavior, brain and hormones.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2, 81. doi:10.3389/fnbeh.2018.00081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Gausel, N., & Leach, C. W. (2011). Concern for self image and social image in the management of moral failure: Rethinking sham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4), 468-478.
- Gilbert, P. (2007). The evolution of shame as a marker for relationship security: A biopsychosocial approach. In J. L. Tracy, R. W. Robins, & J. P. Tangney (Eds.),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pp. 283-309). New York: Guilford Press.
- Glenn, C. R., & Klonsky, E. D. (2009). Emotion dysregulation as a core featur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1), 20-28.
- González, R. A., Igoumenou, A., Kallis, C., & Coid, J. W. (2016).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violence in the UK population: categorical and dimensional trait assessment. *BMC psychiatry*, 16, 1-10.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1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al reactivity and delayed emotional recover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ole of shame. *Comprehensive Psychiatry*, 51(3), 275-285.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71-299.
- Gross, J. J., & Jazaieri, H. (2014).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An affective science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4), 387-401.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ublication.
- Heijdenberg, J., & Andrews, B.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different types of anger: A theory-based investig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8), 1278-1282.
- Herr, N. R., Keenan-Miller, D., Rosenthal, M. Z., & Feldblum, J. (2013). Negative interpersonal event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borderline features and aggressive behavior: Findings from a nonclinical sample of undergraduate wome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3), 254-260.
- Kockler, T. D., Santangelo, P. S., Limberger, M. F., Bohus, M., & Ebner-Priemer, U. W. (2020). Specific or transdiagnostic? The occurrence of emotions and their association with distress in the daily life of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ared to clinical and healthy controls. *Psychiatry Research*, 284, 112692. doi: 10.1016/j.psychres.2019.112692
- Kogan-Goloborodko, O., Brüggmann, E., Repple, J., Habel, U., & Clemens, B. (2016). Experimentally assessed reactive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LoS ONE*, 11(11), e0166737. doi: 10.1371/journal.pone.0166737
- Kramer, U., Pascual Leone, A., Berthoud, L., De Roten, Y., Marquet, P., Kolly, S., ... & Page, D. (2016). Assertive anger mediates effects of dialectical behaviour informed skills training for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3(3), 189-202.
- Leach, C. W., & Cidam, A. (2015). When is shame linked to constructive approach orienta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983-1002.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M. (2000).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 J.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 pp. 623-63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Lubke, G. H., Ouwens, K. G., de Moor, M. H., Trull, T. J., & Boomsma, D. I. (2015). Population heterogeneity of trait anger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of trait anger face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neuroticism, depressi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nd alcohol problems. *Psychiatry Research*, 230(2), 553-560.
- Mancke, F., Bertsch, K., & Herpertz, S. C. (2015).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2(1), 1-12.
- Mancke, F., Herpertz, S. C., & Bertsch, K. (2015).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multidimensional model.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6(3), 278-291.
- Mancke, F., Herpertz, S. C., Kleindienst, N., & Bertsch, K. (2017). Emotion dysregulation and trait anger sequential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1(2), 256-272.
- Mneimne, M., Fleeson, W., Arnold, E. M., & Furr, R. M. (2018). Differentiating the everyday emotion dynamic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9(2), 192-196.
- Morales, J., & Crick, N.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Odessa, FL: Routledge.
- Newhill, C. E., Eack, S. M., & Mulvey, E. P. (2009). Violent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6), 541-554.
- Newhill, C. E., Eack, S. M., & Mulvey, E. P. (2012). A growth curve analysis of emotion dysregulation as a mediator for violence in individuals with and withou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3), 452-467.
-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9), 1147-1158.
- Peters, J. R., & Geiger, P. J. (2016).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self-conscious affect: Too much shame but not enough guilt?.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7(3), 303-308.
- Raine, A. (1993). Features of borderline personality and viol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2), 277-281.
- Rizvi, S. L., & Fitzpatrick, S. (2021). Changes in suicide and non-suicidal self injury idea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specific emotions over the course of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Suicide*

-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51(3), 429-445.
- Rizvi, S. L., & Linehan, M. M. (2005). The treatment of maladaptive sham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ilot study of "opposite action".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2(4), 437-447.
- Rüsch, N., Lieb, K., Göttler, I., Hermann, C., Schramm, E., Richter, H., ... & Bohus, M. (2007). Shame and implicit self-concept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3), 500-508.
- Sansone, R. A., & Sansone, L. A. (2012). Borderline personality and externalized aggression.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9(3), 23-26.
- Scheel, C. N., Schneid, E. M., Tuescher, O., Lieb, K., Tuschen-Caffier, B., & Jacob, G. A. (2013). Effects of shame induc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6), 1160-1168.
- Schoenleber, M., & Berenbaum, H. (2012). Aversion and proneness to shame in self- and informant-reporte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3(3), 294-304.
- Scott, L. N., Stepp, S. D., & Pilkonis, P. A. (2014).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feature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motion dysregula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3), 278-288.
- Scott, L. N., Wright, A. G., Beeney, J. E., Lazarus, S. A., Pilkonis, P. A., & Stepp, S. D. (201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aggression: A within-person process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4), 429-440.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research ed.).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taebler, K., Helbing, E., Rosenbach, C., & Renneberg, B. (2011).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8(4), 275-283.
- Stepp, S. D., Smith, T. D., Morse, J. Q., Hallquist, M. N., & Pilkonis, P. A. (2012). Prospective associations amo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terpersonal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 103-124.
- Stone, M. H. (1990). *The fate of borderline patients: Successful outcome and psychiatric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Stuewig, J., Tangney, J. P., Heigel, C., Harty, L., & McCloskey, 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91-102.
- Tangney, J.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9), 741-754.
- Tangney, J. P., Dearing, R. L., Wagner, P. E., & Gramzow, R. (2000). *The Test of Self Conscious Affect-3 (TOSCA-3)*.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angney, J. P., Stuewig, J., & Martinez, A. G. (2014). Two faces of shame: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in predicting recidivism. *Psychological Science*, 25(3), 799-805.
- Tangney, J. P., Stuewig, J., Mashek, D., & Hastings, M. (2011). Assessing jail inmates'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Feeling bad about the behavior or the self?.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7), 710-734.
- Tangney, J. P., Wagner, P.,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Velotti, P., Garofalo, C., Bottazzi, F., & Caretti, V. (2017). Faces of shame: implications for self-esteem,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well-be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51(2), 171-184.
- Werner, N. E., & Crick, N. R. (1999).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4), 615-623.
-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2), 71-83.
- Wilkowski, B. M., & Robinson, M. D. (2010). The anatomy of anger: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trait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78(1), 9-38.
- Zanarini, M. C., Frankenburg, F. R., Reich, D. B., Silk, K. R., Hudson, J. I., & McSweeney, L. B. (2007). The subsyndromal phenomen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10-year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6), 929-935.

원고접수일: 2023년 8월 27일

논문심사일: 2023년 10월 31일

게재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1, 65 - 87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toward Others: Sequential Mediation of Shame-Proneness and Trait Anger

Seulki Lee
Samsung SDS
Mental Fitness Center
Counselor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re aggressive toward others because of their difficulty in emotion regulation. However, emotion dysregulation is a highly complex concept and needs to be specified. Therefore the current study considered dysregulation in shame and anger and their interplay which are especially prominent whe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re aggressive. Specific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shame-proneness and trait anger would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toward others. A total of 273 female undergraduates completed a series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shame-proneness, trait anger, and aggression toward oth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ith more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re more aggressive toward other. Trait anger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toward others. In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shame-proneness and trait anger were not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ors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and aggression toward 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Shame-proneness, Trait anger, Aggression, Female